

순정이

연중 제14주일

제 1 독서 : 에제 2, 2-5
제 2 독서 : 2고린 12, 7b-10
복 음 : 마르 6, 1-6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2고린 12, 9).



하느님 말씀 전하는 사람



범선배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

오늘 첫 독서인 에제키엘서 2장은 예언자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예언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맡아 전하다 보니 때로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전하게도 됩니다. 예언자를 이렇게 볼 때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리스도의 예언적 임무에도 참여한다”(교회헌장 12항)는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적 임무를 맡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하느님 말씀 곧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끔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는 것만을 하느님의 뜻으로 잘못 알고 하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전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생각해본다면, 소리만으로 외칠 수도 있겠고 소리와 아울러 행동으로 하느님의 뜻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두말 할 필요없이 하느님 말씀을 목소리와 함께 실천하면서 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언제나 어디서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또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못한다고 하느님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둘째 독서에서 보는 대로 바울로 사도에게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고 있다. 그 능력은 허약함 가운데서 완성되는 법이다”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허약함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하느님의 뜻인 말씀을 전한다면 분명히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

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이사55, 10) 하신 하느님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말씀을 소리로도 실천으로도 전하여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합시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유신시대?

한상갑(바오로)

한 세대로 통칭되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를 준비하기 위한 지방의회 선거가 끝났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의외여서, 다시 말해서 상식을 뛰어넘고 있어서 모두들 놀라고 있다. 평소의 열악한 지지도에다가 강경대 군의 억울한 죽음 등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으리라던 여당은 횡재를 해서 놀라고, 본전도 못 찾은 야당은 뉘이 나간 물골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대판 홍부(?)의 매콤' 효용을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10대 가수 뽑기'도 한 모양이라고 비쪽거리기도 한다. 5당 3낙이나 10당 7낙은 또 무슨 말인가?

선거 전에 언론 매체들은 전문조사기관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투표 참여률의 예측을 발표했다. 모두가 다 7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그러나 실제 참여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니, 15.5%에서 20.7%까지의 오차를 내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야당에게는 가혹하리만큼의 호된 비판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말이다. 이러한 기사들을 읽노라면 정신이 멍해진다. 그러면서 언론의 횡포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종반전에 이르렀을 때, 민자당 지도부는 실로 놀라운 발언을 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이를 그냥 지나쳐버렸거나 아니면 우물 우물 넘어가고 말았다. 누구를 위해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나 혼자서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비는 심정에서 「한겨레 신문」을 인용, 소개한다.

“재야와 학생은 민주화를 입으로 외치지만 김일성이가 하자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사정없이 혼내줘야 할 대상/야당들도 이에 못지 않은 사람들/신민당과 민주당은 검은 노란색 초록색 등으로 호리개 하고 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벌건 색깔이 나오는 세력/신부는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성당에 숨는 이들을 감싸주는 X들/가톨릭 농민회는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사일에 지친 농민이나 선동하는 것들”(6월15일, 홍성 등지에서 김종필).

“아베 신타로 일본 전 자민당 수상 후보 장례 참석차 일본에 갔다가, 일본 전역의 파친코 수입 총액이 연간 20조엔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조총련에서 마음대로 쓰는 몫이고, 그 상당 부분이 국내에 들어와 재야 학생

들의 시위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대구에서 박태준).

이 나라의 거대 여당인 민자당 최고위원들의 말이다. 참으로 섬겼한 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김씨의 말에서는 기세 등등하던 유신 시절이 연상되기도 한다. 재야, 학생, 야당은 물론 교회까지도 싸잡아서 '좌경'으로 몰아버리다니!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문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되는지? 잘못 된 선거법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알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공명선거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으로 야당만 크게 위축됐다고도 말한다. 이러한 판에 우리의 파수꾼인 언론은 무슨 역할을 해냈는지!

유신 시절에 가톨릭 노동 청년회와 가톨릭 농민회는 정권 당국에게는 골치아픈 존재였다. 그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농촌 현실에 대해서 광야의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사실 한때는 농민들이 범씨 품종 선택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못자리판이 짓밟히기도 했다. 이러한 판에 가톨릭 농민회는 품삯도 못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바른 평가를 위한 제반 조사활동 등으로 우리의 농정에 공헌한 바도 컸다. 그런데도 한마디로 선동 집단으로 몰아버리다니! 미문화원 방화사건 때는 또 어땠는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대신 십자가를 쳐 사제의 소임을 다한 사제를 그렇게 매도해도 괜찮은가! 도대체가 한 나라의 정치 일선에 선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양심이 의심스럽다.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개구장이 내 친구들

박금숙(마리아)/용머리 성당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마태5,8).

안개꽃을 한아름 안고서 환한 미소를 띠고 들어온 그녀는 어린이들과 함께 살아서인지 맑은 모습이 눈에 돋보인다.

“저는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박금숙(마리아·26세) 양, 그녀는 6년간을 교리교사로 있으면서 어린이들과 친근한 벗이 되었다. 현재 용머리 성당 초등부 4학년울 맡고 있는데 어린이들과의 우정이 매우 두터움을 느끼게 한다.

그녀가 교리교사를 하게 된 것은 자신이 중고생 때 쉼을 하면서 지도교사로부터 영신적·정신적으로 도움을 받는데에서 비롯된다. 교리교사 초기에는 활동을 중심으로 했으나 차차 신심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하여 성서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성서, 성가를 가르치면서 그녀의 신앙도 점차로 성장되어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천진스러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사리 같은 손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하얀 백지와도 같아서 가르치는 것들을 단순하고 맑은 눈길로 투명하게 받아들인다. 예수

님께서 왜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것 같았다.

한편 그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충실하려 애쓴다. “서둘지 말라. 그러나 쉬지도 말라”는 말씀을 곧잘 묵상하면서 삶의 보릿고개를 인내롭게 헤쳐나간다. 바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밤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9일기도, 성서 낭독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새로운 날을 준비한다. 또한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참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불러준 세례명이 마음 깊이 하느님 자녀임을 새겨주었다. 이런 신앙의 밑바탕이 교리교사를 하는데 많은 길잡이와 디딤들이 되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교리교사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본당 어린이들과 함께 공소 어린이들을 방문하였을 때의 기쁨이다. 그 공소 어린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그려진다고 한다. 많은 공소 어린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참으로 어릴 때의 신앙 교육은 인생에 있어 보약과도 같다. 그러기에 “부모님들께 부탁드려요. 무엇이 옳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는 어린이가 되도록 주일학교에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린이들을 아끼는 사랑의 내음이 가득히 풍겨나온다.

신자들의 소리

꿈 나 무

이정화(모니카)/금암 성당

주일학교 유치부를 맡던 어느 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자신있게 손들며 대답하던 아이의 빛나던 눈망울이 아직 생생한 듯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은 아주 키가 크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아마 하늘색 옷을 입고 있을거예요!” 하느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며, 옷 색깔까지 얘기하던 그 아이의 대답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지녔다고 여러 사람에게 자랑하던 기억이 채 가지지 않았는데...

얼마 전 ‘장래 나의 희망’이란 제목으로 성소주일 글짓기를 하던 날, 원고들을 읽어가던 선생님들은 우리의 현실에 가슴 아파야만 했습니다. 소박한 꿈을 지닌 아이도 많았지만 돈 많은 부자가 되는게 제일 좋다는 아이도 적지 않았으니...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는 아이,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들은 짜다고 하시던 부모님의 말씀에 돈 많이 버는 대학교수가 되고 싶은게 지금의 꿈

이라던 한 아이의 글을 보며, 어른 같아지는 아이들이 누구의 책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두세 군데의 학원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라 생각하는, 미사보다는 학원 공부가 중요하다며 성당 나오기 힘들다던 아이들을 접하며 어린이들보다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교리를 해야 하겠다던 어느 선생님의 희망 사항이 더욱 간절해지는 듯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나보다는 남을 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남아 있기에, “능력은 하느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시던 교사 시작하던 때 들려주시던 수녀님의 말씀처럼 우리 예젠 가장 든든한 배경인 하느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두손 모아 기도드려봅니다. 하얀 도화지에 정성을 다해 어여쁜 그림을 그리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박한 꿈을 소중히 간직하며 사랑을 나누어줄 우리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 · 청소년 신앙 교육 ①

신앙 교육 |||| 무엇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초·중고생들의 방학이 시작되고 또 각 본당에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동원하는데 애를 먹고 또 모인다 해도 일회적임을 볼 때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것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입시 위주의 교육과 부모들의 무리한 요구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잘못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방학을 맞이하여 바람직한 신앙 교육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보고 선생님들을 통하여 몇 회에 걸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부모들이 하느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 아이들은 기도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하느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부모들이 하느님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아이들은 부모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부모들이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체험함으로써 아이들도 자연스레 하느님께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 교육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부모들은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바쁘다. 그러기에 부모들이 하지 못하는 신앙 교육을 선생님들은 주일학교나 썰, 여름성경 학교, 수련회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본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앙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첫째, 어른들의 그릇된 가치관이다. 어른들은 아이들

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켜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보다는 가시적인 물질, 능력, 출세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자녀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도 성당에 나가 시간 빼앗기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아이들 역시 부모들의 성화와 시세의 흐름에 편승하여 푹푹한 아이일수록 성당에 나오지 않고 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귀가를 서두른다. 성적이 떨어지면 고백성사를 봐야 하는 극성스런 부모들의 감시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열심히 성당에 다니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둘째, 선생님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깊은 신앙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성당에서 배운 게 없고 그저 놀다 왔다고 한다면, 또한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없이 걸핏하면 결석하고 지각하는 선생님이라면 그런 선생님들은 아이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또 부모들은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부보쌈

오재천 (안드레아)
정봉교 (마리아)
효지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안나)
이용실·이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 2-8653

미혼 여성 구함

함께 일하면서 생활하실 분을
구합니다. (교우 환영)

☎ (0683) 82-0115

김복례 (도미니카)

우리편두

모범업소 (조리사의 집)

박성환 (조기리아)
김성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앞)

☎ 85-8848

문제인가?

셋째, 선생님들의 봉사시간이 짧고, 교회의 분위기를 잘 모른다. 부모들이나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의 봉사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근무 연한이 길어봐야 1년~2년 정도밖에 안되니 무슨 책임감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선생님들이 세례 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 교회적인 분위기를 모르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다. 시골이야 젊은이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도시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넷째, 사목자(본당 신부, 수녀)들과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어린이, 청소년들은 바로 교회의 희망이요 미래이기 때문이다. 사실 사목자들은 나름대로 어린이, 청소년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얘기를 정리해보면 교육이 중요한 만큼,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다. 주일학교는 그래도 좀 낫지만 중·고생에 대한 배려는 거의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자기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듯 교회의 장래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겠다.

그리고 교사가 부족한 곳에서는 자모회 같은 단체에서 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다섯째, 체계적인 계획(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과 집중적인 투자가 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똑똑하고 훌륭한 자기 자녀들은 신학교나 수도회에 보내지 않으면서 훌륭한 사제, 수도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듯 실력있고 헌신적인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꺼려 한다. 또한 자녀들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2~3개씩 학원에 보내고 가능한 한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투자하면서 영원한 가치인 하느님 나라를 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신앙 교육에는 지나칠 정도로 소홀하다.

국민학교, 중학교 때의 신앙 교육은 평생을 살아가는 영혼의 양식이 되고, 고등학교 때의 신앙 교육은 그 양식을 소화하는 과정이며, 성인이 되어서는 소화된 양식을 이웃에게 베풀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교회의 희망이요 사랑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요십이 (935) 김병오



“나자렛 예수 자매회” 성소자 모집
 마산교구에서는 교구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수녀회를 창설하고, 놓여온 선교 및 봉사사목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봉사에 나서고자 합니다. *활동: 놓여온 선교 및 봉사사목, 사회복지시설 운영, *입회자격: 만30세 미만의 교교 하위 이상인 것으로 영세한 지 3년 이상 경과된 신앙이篤실하고 건장한 미혼여성. *문의처: (635-950)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 2구 206번지 유 불 호 (바르톨로메오) 신부 ☎ (0559) 32-6295

해성고 제6회 동 기 회
 7월 7일 오전 10시 모교 강당
 회비 : 20,000원

백운전자
 방송용 앰프 설비 (인켈, 롯데) 학교, 교회, 강당, 빌딩, 새마을 비디오 촬영, 각종 마이크
 전주중앙시장통 (시민약국앞) ☎ (0652) 252-0231 백정수 (리노), 이순녕 (테레사)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수녀화·총판매장(공정직영) 아동화·특수화
 김 문 식 (베드로) ☎ 82-3118
 풍남문, 초린, 송악로 사거리

공인 중개사 송영은(돈보스코) 사무소
 ☎ (0652) 87-0088 (자택) 83-0087, 83-0088
 무선 호출기 201-7220
 토지, 임야, 주택, 상가, APT 전세 매매 알선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 한 중 (요한)
 황 인 재 (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염
 ☎ 84-7294

신선한 생맥주와 함께 생활의 맛과 여유를 찾으십시오.
카이저호프
 *아르바이트스 모집 (신자 환영)
 ☎ 85-8801 (한성어관 사거리)

뿌리를 찾아서

중앙 성당

교구의 일에
앞장서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본당

박해시대 때 선조 순교자들이 우차로 혹은 들것체에 실려 조롱과 능욕 속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모습이 중앙 성당 주위에 추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김발도로메오 주교는 순교 성지로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1947년 11월 12일에 대동애다 임시 성당을 설립하고 숲정이에 기념 성당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다가 적당한 기지를 확보치 못해 후에 대동 성당이 현 중앙 성당 자리로 옮겨져 순교 기념성전 겸 주교좌 성당으로 건축하게 되었다.

만인이 드나드는 역(설립 당시에는 전주역이 지금의 시청 자리에 위치하였었다) 앞에 성당을 세운 뜻은 옛 순교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보고 사학꾼이니 천주학생이니 하고 욕하

며 구경하던 그의 후손들에게 잘 보이라고 세웠으며 순교자들이 민던 천주교를 경외와 존경의 마음으로 연구하여 그들이 죽음으로 증거했던 영생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루 세 번의 거룩한 종소리로 깨우치기 위함이었다.

김 주교의 포부이던 숲정이 성지에는 지금의 해성학교가 세워졌다.

중앙 성당 건립은 적당한 부지 구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구에서 경영하던 전북 제사공장 자리에다 1955년에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하여 교구 내에서 제일 큰 성전을 준공하게 되어 1956년 8월 6일에 주교좌 성당으로 축성하였다. 1965년에는 3층과 강당 신축, 1975년에 성모 유치원 신축 개원, 1977년 노인학교 개설, 1978년 양로원 설치



운영, 1981년에는 중앙 성당 건립 25주년 기념 성당 신축 계획으로 1982년 금암동 성당의 착공을 보았다. 그 이전에도 많은 전주지역 본당의 설립으로 관할권을 이양하여 주교좌 본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1988년에 성당 체대 보수공사와 1987년에 현 사제관 및 수녀원 축성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주교좌 본당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중앙 성당은 교구 치명자산 개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자체 바자회를 개최하여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모든 면에서 교구의 일에 앞장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명상의 자리

비 그친 후 나는
젖어 있는 잔디 위를 걸어봅니다.
싱그러운 풀 냄새와
그윽한 흙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요!

나는 이 흙의 소생입니다.
나는 풀잎과 같으며,
이 신기하고도 생명력 넘치는
대지는
내게 생기를 더해주는
내 인생의 터전입니다.



나는 이 흙으로부터 왔고
다시 이 흙으로 돌아갈겁니다.

대지는 나를 다시 받아들이 것이며,
언젠가는 어쩌면 나는
다시 이 땅 위에
한송이의 민들레가 되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따스하고 싱싱한 이 대지 위에....

신속배달 한성가스

대표 최영혜 (헬레나)
이리시 남중동 국도거리국 앞
☎ 855-1323, 855-1324

성원인테리어총판

■특수 보조기 ■자동 건조대 ■수족판
■인테리어 선반 ■원목·철제가구

서원식 (야고보)
고선규 (미카엘라)
용지구 북부시장 내
※ 주부사원 모집
주·야 78-1941
☎ 012-682-3111

경병항공

• 해외여행 • 여권·비자·유학
• 신혼여행 • 국외항공권 발매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77
TEL. (0652) 87-9797
FAX. (0652) 86-2754
이종길 (요한)

Bodyma

(주) 보디마 전주대리점
여드름, 기미, 검은피부, 잔주름
화장독으로 인한 문제성 피부
(상담 환영) 맞사지 전문
전점수 (모니카)
전주시 완산구 중의동17121의4
(구) 월드컴 시거리
☎ (0652) 86-5007

교 구 소 식

- ◆참사회
 - 때 : 7월9일(화) 오전10시
 - 곳 : 교구청
- ◆축! 건진
 - 때 : 7월14일 오전10시
 - 곳 : 오룡동 성당
- ◆전국 가톨릭 대학생 대동제
 - 때 : 7월10일(수)-11일(목)
 - 곳 : 전북대학교
- ◆에비 신학생 모임
 - 때 : 7월14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대상 : 중·고·대·일반
- ◆수녀연합회 월례회
 - 때 : 7월8일(월) 10시-16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여성연합회 상임위원회
 - 때 : 7월8일(월)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 ◆인후동 성당 전화번호 변경
 - 주임신부 : 86-5223
 - 보좌신부 : 86-8876
-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때 : 7월8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대상 : 사랑의 다리 회원과 사회복지 활동을 후원하고자 하는 분
- ◆가톨릭 사진가 협회 회원 모집
 - 대상 :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
 - 문의 : 교구청 홍보국 (85-0041)
- ◆여름 꾸르실로
 - 때 : 남성39차-8월8일~11일
 - 여성35차-8월22일~25일
 - 신청 : 7월8일까지
- ◆해의 소식
 - '독일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의 날' 행사가 지난 5월 19일 하루 동안 천여명의 신자가 모여 정명조 주교의 집전으로 미사와 만남과 나눔의 잔치, 체육대회, 어린이 잔치 등 다채롭게 거행되었다. (강인찬 신부가 소식 줌)
- ◆축! 영명
 - 11일(성베네딕도) 박성운, 김반석, 김병운, 김용태, 현유복, 권이복, 유영도, 양경배, 정천봉, 이명재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성소모임

- ◆성바로말수도회
 - 때 : 7월7일(오늘) 오후2시
 - 곳 : 성바로 서원 2층 (0652)252-3398
 - 대상 :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젊은 여성
- ◆전교가르멜수녀회
 - 때 : 7월14일 오후2시
 - 곳 :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74-9262
 - 대상 : 관상 안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젊은 미혼 여성
- ◆인보성체수도회
 - 때 : 7월14일 오후1시
 - 곳 : 본원(0652)84-3231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쓰레기 생산자-

내가 버린 하루의 쓰레기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서독이 1.04kg, 프랑스 0.7kg, 일본 0.86kg, 미국 1.6kg에 비해 우리나라의 개인 쓰레기량은 2.1kg이다 (88년 환경청 발표기준). 다른 선진국의 1.5배~3배나 되는 양, 전국민이 하루에 쏟아내는 양은 8만7천톤,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체제로 전환된 경제구조하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 주위를 쓰레기장화시켜 가

고 있다. 쓰레기더미 속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이기적 사고몽치'가 혹시 내가 아닐까? 과다한 포장지, 썩지 않는 깡통, 무의식중에 버려대는 생활 쓰레기, 비양심 기업가의 몰상식 산업 폐기물 처리 등. 이제는 제발 강건너 불구경이 아닌 내 집 불끄기 운동으로 전환해야 될 때임을 자각하고 내 집 쓰레기부터 줄여나가도록 합시다.

관육영재영어학원

- 국교 5,6학년, 중학교 주말반(중 3및 고교)
- 강의실별 정원 : 15명
- 학원버스 2대 운행

**☎ 223-8084
223-8551**

중화산동 전주여상 신축부지 앞

안 금 숙 (엘리사벳)

■실내외 장식 ■설계 ■감리
■디스플레이 ■토털 디자인

라인 인테리어

대표 구 원 (요한)
(이리시 마동 시거리)
사무실 (0653) 856-1777
자택 (0653) 52-9097

결혼·약혼·파티복·남복

한복고려주단

전 광 원 (마르코)
김 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120-1
'신혼 예식장 골목'
☎ 88-1902

동 화 가 스

서 영 석 (스테파노)

☎ 223-9996
223-9997
용량 5kg판매

우아미가구
(중앙상가2층)

고품질·저렴한 가격
철저한 서비스

조 대 권 (요셉)
최 현 (요셉)
☎ 74-083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1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1. 주일미사에 꼭 참여하십시오.
2. 그날 성경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3. 초·중·고 주일학교 여름행사와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4. 어린이 첫영성체 예행연습: 13일 후1시 30분(첫교백성사 있음. 부모님과 함께 해주세요).
5. 어린이 첫영성체: 14일 공식미사.
6. 어린이 영세식: 14일 후2시.
7. 울뜨레아: 오늘 후8시.
8. 부녀회 상임위원회: 10일 어머니미사 후.
9. 중·고생 하계교리 및 캠프: 14(일)·17(수)·20(토)·21(일) 후4시~6시.
10. 금주 청소: 중노2가 14·15반. 차주청소: 중노2가 16·17반.

☐ 지난주 봉헌금: 878,440원 ☐ 교무금: 1,049,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군

1. 첫영성체: 오늘 공식미사.
2.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후.
3. 대건회: 오늘 공식미사후.
4. 구역분과회: 9일 오전10시.
5. 안나회: 11일 오전10시.
6. 여성분과회: 13일 오전10시.
7. 꾸리아: 14일 오후2시.
8. 요셉회: 14일 공식미사후.
9. 청년회: 14일 저녁미사후.

성당청소(13일): 황금궁전Pr. 성모성년Pr.
금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봉헌-박중호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한기원 독서·봉헌-유두석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32,640원 ☐ 교무금: 1,073,200원
☐ 2차헌금: 249,83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중 석

1. 꾸리아: 공식미사후.
2.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오늘).
3. 섬서읽기: 요한 7장~14장.
4. 반미사: 11일(목) 2구역 1반, 12일(금) 2구역2반(상신방).
5. 청소봉사: 구세주의 모친.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 강덕용 ② 주영례
봉헌-양재철, 김대건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 유순천 ② 김금자
봉헌-양주태, 박귀철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56,810원
☐ 교무금: 104,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연중제14주일(성안드레아 김대건사제 순교자대축일 기념행사).**

1. 회의: ① 반장회-오늘 공식미사후 ② 성심회-7월13일(토) 오후2시. 2. 모임: 울뜨레아-다음주 수요일 저녁미사후.
3. 알릴: ① 반모임-14반 오늘 오후8시30분, 1·2·3반-다음주 화요일, 4·5반-다음주 수요일, 7반-다음주 수요일 오후2시. ② 고 알비나수녀님 본원으로 전출·황 율리아수녀님 부임.
4. 감사: 천막2동과 5키로가스용기 및 반하2점을 유철갑의원에서 기증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 영명 축일에 현조해 주신분들과 여성분과 자매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603,700원 ☐ 교무금: 480,000원
☐ 2차헌금: 196,5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환영!!! 신촌주택구역, 금호타운 형제자매님.**

1. 첫 영성체교리: 매주 수·금요일 오후5시.
 2. 유아영세식: 13일(토) 오후5시.
 3. 꾸리아: 오늘 공식미사후.
 4. 초막공동체, 초등부·고등부 여름계획: 까치참고.
 5. 청소봉사구역: 서완산동 1가 동·서편.
- ☐ 지난주 봉헌금: 534,600원 ☐ 교무금: 781,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1. 구역봉사지 성지순례: 오늘 미리내 성지.
2. 재속글라리 형제회: 오늘 오후1시30분.
3. 구역반 기도회: 7월9일~12일.
4. 중·고생 하계교리 및 캠프: 하계교리-7월24일~27일, 장소-전동성당 캠프-7월28일~30일, 장소-살레시오 캠프장.
5. 돈보스코회: 10일(수) 저녁7시30분.
6. 유아세례: 13일(토) 오후3시, 사무실에 신청.
7. 자모회: 다음주 오전10시. 8.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금주보수비헌금액: 2,480,000원 *현재보금총액: 236,601,691원 ☐ 지난주 봉헌금: 1,691,000원 *금주보수비헌금액: 없음. *현재신입총액: 253,119,618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 모든 교형자매께 감사합니다**

- 예울-2,006,000원(복사기 기증).
1. 초·중·고 여름 성경학교 및 산간학교: 도용주신 은인을 구함.
 2. 여름성경학교 입학원서: 초등부-2,000원 중·고생-4,000원.
 3. 사랑하늘 어머니Pr·상아탑Pr 단합 옥의행사: 11일 전10시 출발, 장소-동상 수만리, 회비-5,000원, 미사도구 준비바람.
 4. 제대회 웰레미사: 12일 후3시, 명예회원도 참석을바랍니다.
 5. 회의: 자모회-10일 어머니미사 후, 더많은 회원을 환영함.
 6. 평화 M. E 가족모임: 11일 저녁8시, 사제관에서.
 7. 가정미사·탈삼미사는 2주전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지난주 봉헌금: 754,820원 ☐ 교무금: 1,104,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사목회: 공식미사후.
2.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후-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성모회·자모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4. 본당에 이사오시고 아직 교적이 정리 안된 가정은 사무실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5. 여름성경학교: 22일(월)~27일(토) 오전9시에서 12시30분까지(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6. 청소봉사: 은총의 중개자Pr.
7. 금주 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박경애·김용우
차주 전례: 최경순 독서·봉헌-권영미·김영복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1. 안나회: 오늘 11시 미사후.
 2. 울뜨레아: 다음주 11시미사후.
 3. 글라리회: 10일(수) 10시30분.
 4. 레지오넬 분당 청소: 깨끗히 해주세요.
 5. 성탄반 예비자 교리 사제: ① 일-9:30 ② 목-10:30 ③ 금-후8시.
- 교황청을 위해2차헌금-422,480원원조에 감사합니다.
6. 초·중·고 학생들을 주일학교에 보냅니다.
 7.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적극참여합니다(특히 새벽0시-4시).
 8. 한신자 일단체 가입합니다.
 9. 형제회에 적극 참여합니다.
- ☐ 지난주 봉헌금: 1,020,550원 ☐ 교무금: 2,260,000원

*** 효지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꾸리아: 공식미사 후.
 3. 성모·자모회: 12일(금) 10시미사 후.
 4. 공소미사: 12일(금) 오후2시 독매, 저녁8시 이서.
 5. 예비자교리시간: 주일 오전9시, 수요일 오전10시, 저녁8시.
 6. 평일미사에 적극참여합니다.
 7. 반석회 단합대회: 17일(수) 오전9시.
차주 모임: 울뜨레아, 신축헌금 총액: 97,110,000원 봉헌액: 2,230,000원
- 금주 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 조규명 ② 안귀래
기도① 김광년 ② 백명희
차주 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 김영복 ② 이한은
기도① 송재만 ② 이화선
- ☐ 지난주 봉헌금: 793,130원 ☐ 교무금: 1,764,000원
☐ 2차헌금: 480,400원